

특 집 / IMF 체제가 양돈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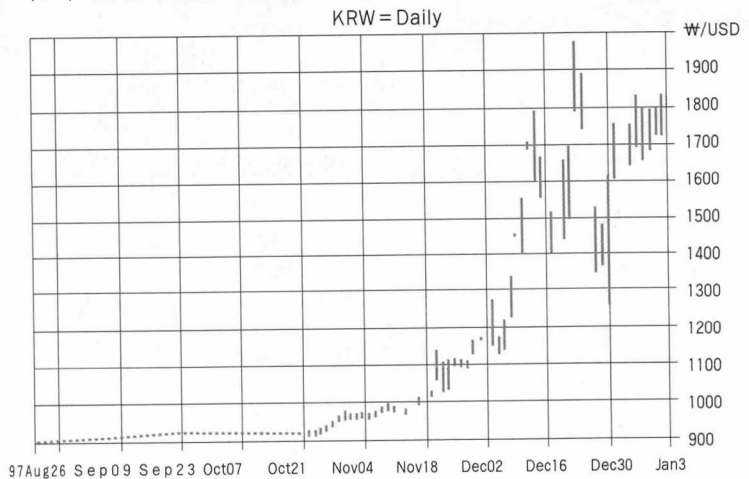
환율상승이 배합사료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금년 7월 이후 태국 및 인도네시아 화폐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기점으로 하여 동남아 국가들이 금융위기의 태풍에 휘청거릴 때도 우리는 그러한 위기가 경제구조가 취약한 개도국들에서나 가능한 일들로 치부하고만 있었다. 당시에 기아 및 해태그룹 등 국내재

계 순위 30대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기 시작하므로 우리나라 경제의 Fundamental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되기 시작되었지만 사태를 직시하지 못한 우리의 안일한 대응으로 결국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급락하게 되었고, 외국의 자본들은 썰물

하 훈 대리
(축협중앙회 무역팀)

<표1> 원/달러 환율 가격변동 그래프



같이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도 주식 폭락 및 환율의 폭등이 지속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계 금융불안을 주도하는 세계화의 중심에 서있는 느낌이다.

환율급등의 원인 및 현황에 대해서는 국내 주요언론들에 많이 보도되었고 이에대한 관심증가로 일반인들도 주지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코자 한다. 다만 환율 폭등에 따라 배합사료 판매가격이 급등하므로써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양축농민들에게 문제의 실상을 전달하고 또한 대책을 제시코자 한다.

1. 환율변동 상황

원화에 대한 미국달러 환율은 작년 동시점 대비 110.06% 급등하므로써 태국 및 인도네시아의 화폐보다 더 급격한 평가절하를 보이고 있다(표2참조)

2. 환율변동이 배합사료가격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서는 배합사료 생산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환율급등은 수입원가의 상승으로 직결된다. 즉 우리나라가 구매하고 있는 옥수수, 소맥을 비롯한 사

<표2> 96~98환율변동 %
*기준율

연도별 월별	96년	97년		98년		
	(₩/1U\$)	(₩/1U\$)	'98대비	(₩/1U\$)	'98대비	'97대비
1월	787.27	849.88	7.95%	1,785.30	126.77%	110.08%
2월	780.28	866.85	11.09%			
3월	781.25	879.41	12.56%			
4월	780.43	893.56	14.50%			
5월	780.16	892.05	14.34%			
6월	797.96	889.49	11.47%			
상반기평균	784.56	878.54	11.98%			
7월	812.76	890.50	9.56%			
8월	816.81	895.90	9.68%			
9월	821.76	909.53	10.68%			
10월	827.61	921.85	11.39%			
11월	828.18	1,025.58	23.84%			
12월	839.02	1,484.08	76.88%			
하반기평균	824.36	1,021.24	23.88%			
연 평균	804.78	951.11	18.18%			

료곡물 및 박류, 강피류의 수입 대금은 달러로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치의 급상승으로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원화의 지급부담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예를들면 1998년 1월 10일자 현재 세계 주요 사료곡물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가격이 톤당 U\$135.00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작년동기에 비하면 톤당 U\$283.00에 옥수수를 수입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옥수수 50,000톤을 수입할 경우 원화로 수입자금을 환산한다면 작년 동기에는 50,000톤 × U\$135 × ₩840 = 약 57억원, 현재는 50,000톤 × U\$135 × ₩1,785 = 1백 20억여원으로 작년보다 63억의 자금부담이 추

가되는 것이다.

이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된다. 우리나라 연평균 사료원료 도입량인 1천5백여만톤으로 단순 계산한다면 15,000,000톤 × U\$135 × ₩945(환율차) = 약 2조에 달한다. 단순가공업으로서 마진이 적은 사료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거의 사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수치로 해석될 수 있다.

사상 유례없는 환율폭등으로 사료업체의 사료판매대금 몇차례 인상은 불가피하였다. 대부분 업체가 97년말에 1차 10%, 2차 30%로 전체적으로 40% 가까이 인상조치를 하였으나 인상폭은 원화환율의 1,400원 기준으로 결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월 10일자 현재 환율은 1,400원대를 훨씬 웃도는 1,600~1,800원대로 거래되고 있어 사료업계는 환차손 부담에 따른 적자 만회를 위하여 추가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환차손 비상에 따른 사료업계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러한 환차손의 최대 피해자는 역시 축산농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종피해자는 육류 소비층인 일반서민이 될 수 있지만 양축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육류 소비자의 피해는 오히려 사치스러운 고민이 될 수 있다. 소비자야 비싼 육류소비를 줄이던지 안먹으면 그만이지만 양축가들에게는 환차손의 사료가격의 전가는 생존기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환율폭

등은 사상유례가 없고 또한 같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의 사정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향후 환율급등이 우리나라의 축산업 및 양축가들의 사업기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워낙 유례가 없는 일이라 정상적인 경제수치나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망치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단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축산업에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료업계의 구조조정 및 재편과 더불어 양축가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 환율폭등은 사상유례가 없고 또한 같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의 사정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향후 환율급등이 우리나라의 축산업 및 양축가들의 사업기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워낙 유례가 없는 일이라 정상적인 경제수치나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망치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단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축산업에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료업계의 구조조정 및 재편과 더불어 양축가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향후 대책

첫째, 사료업계는 양축가에게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최근 환차손에 따른 극심한 경영난으로 향후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양축가의 사업기반이 무너지면 사료업계의 존립기반

도 함께 위협받는 동반자적인 관계임을 직시하고 현재 비록 어렵더라도 양축가를 위한 서비스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청된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지만, 양축가가 진정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업체는 향후 장기적으로는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및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축가들도 사료공장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양축가들은 배합사료의존도를 탈피하고 조사료의 이용량을 가급적 늘리고 국내의 농가부산물인 조사료 및 단미사료자원을 활용한다.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배합사료보다는 국내에서도 비교적 확보하기 쉬운 벼짚, 맥주박, 미강 등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하면 생산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가 배합사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양관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 즉, 사료급여시 벼짚 등 조사료를 배합사료보다 우선급여하고 비육전기간 배합사료 급여를 가급적 제한한다. 또한 저능력 돼지나 약한 닭은 과감히 도태

시키므로서 생산비를 최소화한다.

넷째, 사료원료의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사료원료 수입원은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통화가 급격하게 절하되고 있는 동남아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료의 사용량을 늘

리면 사료원료 수입에 의한 환차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배합사료의 판매가격이 환율이나 국제원료 시세의 변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상승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하락요인이 있을 때도 판매가격의 탄력적인 조절이 가능하다면 사료업체로서는 경영상 마진을 적정한 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고 양축가의 입장에서든 가축두수 및 출하조절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영농이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사료업계의 환차손 관리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년말



부터 환율거래 제한선이 철폐되므로서 사료회사들은 원료수입자금 지급에 따라 환리스크에 무제한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고정환율이나 제한선거래 시장에서는 환리스크 관리는 크게 의미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도 이러한 사정에 연유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환율관리가 기업손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업계도 환율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차체에 최근의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정부도 환율제한선을 철폐하고 원/달러 선물시장 조기개설을 서두르고 있는바 금년 상반기에 선물시장이 개설되면 사료업계로서는 환거

래 위험방지(HEDGING)를 위하여 선물거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곡물 시장의 진출이다. 최근의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급락으로 일부업체는 사료원료 수입신용장 수취자체가 거절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에 따라 원료공급이 적기에 이루어 지지 않아 원료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식량공급 PIPE LINE은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량식량수입국이 금번 사태와 같은 위기로 해외로부터의 식량공급이 전면 중단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養豚**